

무채색과 유채색 배색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평가 - 빨강, 노랑, 초록 저고리를 중심으로 -

강경자⁺ · 정수진^{*}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진주국제대학교 실크패션학과 전임강사^{*}

The Image Evaluation for Acromatic and Cromatic Coloration of Korean Dress's Wearer - Focused on Red, Yellow and Green Jacket -

Kyeong-Ja Kang⁺ · Su-Jin Jeong^{*}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Dept. of Silk Fashion,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2007. 7. 10. 접수; 2007. 9. 1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image dimension depending on the coloration of the Korean jacket of cromatic colors and the Korean skirt of acromatic color and to elucidate the image difference depending on the tone variation of the Korean jacket and the Korean skirt.

The experimental materials used for this study were sets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7 point semantic). The stimuli manipulated by computer simulation were 48 color pictures with various combinations of colors of jackets and skirts. The subjects were 576 female undergraduates living in Jinju city. This experiment was based on the $3 \times 4 \times 4$ factorial designs: jacket color(red, yellow and green), jacket tone (vivid, light, dull and dark), and skirt tone(N9, N7, N4 and N2).

Image factor of the stimuli consisted of 4 different dimensions(youthfulness and activity, gracefulness, visibility and tenderness). Among them, the youthfulness and activity, and the gracefulness were important. According to the tone variation of Korean jacket of cromatic colors and Korean skirt of acromatic color, the images for a wearer were expressed diversely and showed the difference in image dimensions.

Key Words: Cromatic color(유채색), Acromatic color(무채색), Coloration(배색), Traditional Korean dress(한복)

I. 서 론

인간이 가진 감각 중 하나는 시각적인 감각이다. 특히 디자인에 대한 시각적인 인식은 개인의 연령, 성별 및 심미안, 심리상태, 생활환경과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지만 디자인의 조형요소인 색채, 형태, 소재 등에 의해 다르게 되므로 이들 요소는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의복에 사용된 색은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우선적으로 지각되는 요소로 첫인상 형성 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보고되고 있다¹⁾. 또한 의복에 사용되는 배색방법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색은 의복의 이미지 창출에 효과적이다. 즉 색은 단색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복수의 색이 사용되어 배색될 때 일반적으로 지각자는 각각의 색을 분리시켜 지각하지 않고 조직화된 전체로 지각하게 되며, 명도, 채도, 색상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각된다. 특히 한복은 두 색 이상의 배색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형태로 디자인보다 사용되는 색상이나 톤에 의해 변화를 시도하기가 용이하므로 다양한 색상과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최근 한복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새로운 디자인과 색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어 전통한복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색상 외에 다양한 색들이 사용되고 있다. 무채색은 오랫동안 색이 가지는 부정적이고 엄숙한 이미지로 사용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무채색은 소비자의 기호와 감성의 변화로 인해 도시적인 세련미와 품위,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으로 그 범위가 넓어져 일상복식에서 긍정적인 색으로 대중화,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한복에서 특수한 상황이나 일부 한정된 부분에만 사용되었던 무채색은 유채색과 함께 사용되어 한국패션이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선행연구²⁾³⁾에서는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으로 치마, 저고리의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상, 하의의 톤에 차이를 둔 톤 온 톤 배색, 이와는 반대로 치마, 저고리의 톤은 동일하게 하고

상, 하의의 색상에 차이를 둔 톤 인 톤 배색 즉 두 가지 배색방법에 따라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조합만을 다루고 있다. 사용되는 색상이나 톤에 의한 배색방법으로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하다면 유채색간의 배색 외에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방법도 시각적 형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채색과 무채색의 2색 배색 조합으로 빨강, 노랑, 초록의 3 가지 색상의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를 톤을 다르게 하여 각각 배색시켰을 때 한복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유채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배색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밝히고, 저고리와 치마의 색상과 톤의 변화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이를 규명하면서 한복 배색에 따른 코디네이션으로 효과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의복이미지는 의복을 통해 나타나는 분위기나 연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의복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디자인 요소들의 시각적 특징에 의해 형성된다. 즉, 의복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단서로는 색채, 소재,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의복에 표현된 색은 의복 착용자에 대한 지각과정에서 생리·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색이 가진 이미지에 의해 의복 전체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각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⁴⁾. 또한 색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거나 보편적인 이미지 특성으로 인해, 언어보다 빠르게 전달되며 효과적으로 개인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조형언어로⁵⁾,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시적인 표현수단이 된다.

무채색은 흰색에서부터 검정에 이르는 회색 단계로 밝고 어두운 정도 즉 명도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는데 명도가 가장 높은 흰색은 깨끗하고 순수하며 단순한 느낌을 주며, 한민족의 심

성과 기질에 부합되어 한민족의 대표적인 색으로 말하기도 한다. 회색은 대체로 무겁고 차가운 느낌을 주지만 명도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밝은 회색 톤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어두운 회색톤은 딱딱한 이미지를 준다. 검정은 모든 색이 혼합된 색으로 과거와는 달리 젊은 신세대들에게 첨단의 이미지, 패션 비즈니스 등의 새로운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검정색을 유채색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보다 뚜렷히 부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검정은 평안함과 보호감, 신비감을 주기도 한다⁶⁾. Hollander⁷⁾에 의하면 검정색을 착용하는 습관은 다른 어떤 색상의 착용보다 더 강력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한결같은 흐름이라고 하여 검정색은 독특한 힘과 개성을 지닌 색상이라고 하였다.

의복이미지 지각에 있어서 Francois와 Evans⁸⁾는 의복 착용자의 긍정적인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복스타일보다 의복명도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고, 이윤주⁹⁾는 색채에 의해 형성되는 의복이미지 연구에서 검정색 배색이 현대적이며 대담한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의복색 선호도를 조사한 김영인¹⁰⁾, 김미영¹¹⁾의 연구에 의하면 흰색에서 검정색에 이르는 무채색들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색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복색으로 무난하고 차분한 무채색 계열을 더 선호하며 의복색으로 무채색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¹²⁾의 연구에서는 의복 배색연출별 배색방법에 따른 시각적 감성차이를 알아본 결과 대조배색에서 유채/무채 배색은 무난한 감성으로, 유사배색에서 유채/무채 배색은 매력있고 성숙하며 무난한 감성으로, 액센트 배색에서는 유채/무채 배색은 성숙하고 무난한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Ikeda & Konoe¹³⁾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복식 색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 이미지 요인을 활동성, 친근성, 사회성 요인으로 분류하고, 무채색은 활동성과 친근성 요인에서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으나, 사회성 요인에서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미승¹⁴⁾은 의복 색은 현시성과 성숙성 차원에, 의복형태는 활동성과 편안성 차원에 더 영향을 미치며 무채색

의복이 유채색 의복보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박종희, 최재란, 류숙희¹⁵⁾는 4종류 무채색으로 된 5종류의 의복형태(H, A, V, X, O-Line)를 제시하여 색채에 의한 의복의 시각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복의 색채는 성숙성, 경연성, 매력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회색, 검정은 이성적이고 딱딱한 이미지, 흰색은 부드럽고 감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김윤경, 강경자¹⁶⁾는 의복스타일, 의복색, 톤조합의 변화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20대 여대생들은 캐주얼, 포멀스타일 모두 의복색이 무채색일 때 매력있는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유채색이 더 눈에 잘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유성 요인에서는 의복색이 무채색일 때 여대생 집단은 딱딱하고 어둡고 차가운 인상으로 지각하였다. 상, 하의 색상과 하의 형태(스커트/팬츠)에 따른 캐주얼웨어 착용자의 인상을 분석한 문주영, 강경자¹⁷⁾는 외모평가 요인에서 하의 형태가 스커트일 경우는 흰색을, 팬츠일 경우는 검정색을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으며, 대담성 요인에서는 상의가 흰색일 경우 팬츠가, 검정일 경우는 스커트일 때 높게 지각되었다. 이미정, 김준범, 이인자¹⁸⁾의 연구에서 재킷(흰색, 검정)과 스카프 색(흰색, 검정, 회색)의 명도 변화에 따른 얼굴 밝기의 착시 실험 결과 흰색 재킷에서는 스카프 색의 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얼굴 밝기가 어두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은 두 색 이상의 배색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의복형태로 한복의 색과 관련된 이미지 연구로, 강혜원, 고애란¹⁹⁾은 한복의 배색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고, 이해숙, 김재숙²⁰⁾은 한복이라는 동일한 의복형태라도 색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가 다르고 단색과 배색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또한 금기숙²¹⁾은 조선복식의 색조화 방법상 특징을 보면 명도가 낮은 색을 주로 치마에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현화, 박찬부²²⁾는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에는 색상, 색상조화, 한복의 구조가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색상조화가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나타나 한복의 배색에 따라 전체적인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한복의 배색방법에 따른 선행연구^{23),24)}에서 톤 온 톤 배색과 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복의 치마, 저고리의 톤 조합에 의한 한복착용자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톤 온 톤 배색에 의한 이미지가 톤 인 톤 배색에 의한 이미지보다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치마, 저고리의 색과 톤의 조합에 따라 이미지 연출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와같이 의복단서들의 조합상태에 따라 이미지 차원이 다르게 지각되는 것은 의복상의 화 하의의 조화에 대한 지각자의 이미지는 상이나 하의 각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매우 다를 수 있다고 본 Gibbins & Schneider²⁵⁾의 견해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복배색의 조화감을 연구한 선행연구²⁶⁾에서 한국여대생은 대체적으로 치마색이 명도가 낮은 무채색으로 조합될 때 조화가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 치마를 저고리색의 톤보다 짙은 색을 입는 전통적인 한복배색에 익숙하여 미국여대생에 비해 한복배색의 조화범위가 좁게 나타나 문화 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복배색에 따른 조화감은 색상과 톤 변화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었으므로, 빨강, 노랑, 파랑의 유채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배색과 톤 변화에 따라 한복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보고 무채색과 유채색의 색채조합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이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은 선행연구^{27),28)}에서와 동일하게 치마, 저고리의 전통 한복을 착용한 여자의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통제하였다.

한복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성방법이며 배색 구성은 저고리 깃과 고름색은 치마 색과 동일하게 하고 저고리 색상은 다르게 하였

<표1> 자극물에 사용된 색

	sample		면밀기호
유 채 색	빨강 (Red)	vivid	5R 4/14
		light	5R 8/6
		dull	5R 5/6
		dark	5R 2/6
	노랑 (yellow)	vivid	5Y 8.5/14
		light	5Y 8.5/6
		dull	5Y 7/6
		dark	5Y 3/4
무 채 색	초록 (Green)	vivid	5G 5/10
		light	5G 8/4
		dull	5G 6/4
		dark	5G 2/4
	흰색(white)		N9
	밝은회색(light gray)		N7
	어두운회색(dark Gray)		N4
	검정색(black)		N2

으며 자수나 문양, 염색, 끝동 등은 없는 것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선정된 치마의 색은 무채색으로 하였으며 명도변화에 따라 흰색(N9), 밝은 회색(N7), 어두운 회색(N4), 검정색(N2)으로 하였다. 저고리의 색상은 한국 고유의 전통 배색을 참고로 빨강치마를 기준으로 하여 동색인 빨강저고리, 유사배색이 되는 노랑저고리, 대비배색이 되는 초록저고리로 모두 3가지 색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색상은 순색인 비비드(vivid)와 체도는 중간으로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준 라이트(light), 덜(dull), 다크(dark)의 4가지 톤으로 조작한 후 한국표준색표집(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²⁹⁾의 색상에 준하여 최종적으로 색상을 선정하였으며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1>과 같다.

자극물의 제작은 한복 착용자의 그림을 CAD system(4D-BOX 6800 Zun system)에 scanning하여 이미지를 입력시킨 다음 선정된 색상을 치마·저고리에 각각 배색되도록 색상과 톤을 조작한 후 프린트하였다. 최종 자극물은 저고리색 3가지(빨강, 노랑, 초록), 저고리톤 4가지(비비드, 라

<표2> 자극물의 조작분류

저고리색 치마톤	빨강(R)				노랑(Y)				초록(G)			
	vivid (V)	light (L)	dull (D)	dark (K)	vivid (V)	light (L)	dull (D)	dark (K)	vivid (V)	light (L)	dull (D)	dark (K)
N9(9)	RV9	RL9	RD9	RK9	YV9	YL9	YD9	YK9	GV9	GL9	GD9	GK9
N7(7)	RV7	RL7	RD7	RK7	YV7	YL7	YD7	YK7	GV7	GL7	GD7	GK7
N4(4)	RV4	RL4	RD4	RK4	YV4	YL4	YD4	YK4	GV4	GL4	GD4	GK4
N2(2)	RV2	RL2	RD2	RK2	YV2	YL2	YD2	YK2	GV2	GL2	GD2	GK2

이트, 텔, 다크), 치마톤 4가지(흰색,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색)를 조합하여 만든 총 48개 ($3 \times 4 \times 4$)의 자극물을 조작내용은 <표2>와 같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저고리색 3가지, 저고리톤 4가지, 치마톤 4가지의 3원 요인 설계로 이루어졌다. 총 48개의 자극물을 48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각 실험조합별 피험자 수는 12명씩 피험자 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 되었다.

3)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의복착용자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들³⁰⁾⁽³¹⁾⁽³²⁾⁽³³⁾에서 사용된 형용사상과 색상과 톤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0쌍의 형용사상을 추가하여 총 40쌍의 형용사상이 수집되었으나 요인분석결과 25개의 형용사상이 최종 선정되었다. 자극물 속의 착용자 이미지를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로 각 형용사상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 극단의 긍정적 형용사에 7점, 우측 극단의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피험자는 전주지역의 여대생 5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03년 9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저고리와 치마의 색상과 톤의

변화에 따라 한복 착용자가 주는 이미지의 요인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하였다. 각 이미지 차원별로 용어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총 25개의 형용사상에 대해 $\alpha = .85$ 로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 있게 평가되었다. 도출된 이미지 요인들, 즉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94, .90, .78, .7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의 색상과 톤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밝히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유채-무채 배색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차원

3가지 색의 유채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톤에 변화를 준 48개의 자극물에 대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25개의 형용사상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분석결과에서 아이겐 값 1.0 이상으로 하여 형용사상들이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요인 1은 경쾌한-중후한, 밝은-어두운, 발랄한-젊은, 산뜻한-칙칙한,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등이 포함된 13개의 형용사상들로 구성되어 젊음·활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

<표3> 유채-무채 배색에 의한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요인1 젊음, 활동성	요인2 품위성	요인3 현시성	요인4 우유성	공통성 (h ²)
경쾌한-중후한	.878	-.115	-.095	.049	.796
밝은-어두운	.872	-.052	-.159	.142	.808
발랄한-점잖은	.844	-.229	-.036	.082	.773
산뜻한-칙칙한	.840	.189	-.156	.060	.770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818	-.118	-.138	.054	.706
즐거운-우울한	.769	.230	.043	.198	.685
활동적인-비활동적인	.767	-.136	.145	.142	.648
가벼운-무거운	.742	-.229	-.293	.054	.692
시원한-답답한	.736	.125	-.196	-.133	.613
귀여운-성숙한	.692	-.325	-.077	.049	.593
동적인-정적인	.667	-.123	.211	.087	.511
화려한-수수한	.631	-.020	.352	.108	.534
눈에띄는-무난한	.594	-.159	.355	-.194	.542
우아한-천박한	-.096	.816	-.066	.138	.698
조화된-조화되지 않은	-.026	.804	.075	.098	.662
품위있는-품위없는	-.304	.784	.021	-.003	.707
자연스러운-어색한	.084	.781	-.089	.254	.690
안정된-불안정한	-.187	.771	.001	.063	.634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211	.747	.081	-.030	.611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246	.707	-.073	-.091	.574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052	.706	.020	.057	.505
강렬한-은은한	.008	-.078	.841	-.134	.732
강한-약한	-.171	.134	.838	-.055	.753
따뜻한-차가운	.110	.166	-.061	.883	.824
부드러운-딱딱한	.398	.238	-.281	.648	.714
고유치	8.0	5.2	2.1	1.5	16.8
전체 변량의 %	32.1	20.8	8.2	6.0	67.1
공통 변량의 %	47.8	31.0	12.2	9.0	100.00

량에 대한 설명력이 32.1%로 4개의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젊음·활동성의 구성 인자는 이현화, 박찬부³⁴⁾의 연구에서 젊음요인과 이명희³⁵⁾의 활동성 요인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우아한-천박한, 조화된-조화되지 않은, 품위있는-품위없는, 자연스러운-어색한 등 8

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품위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0.8%였다.

요인 3은 강렬한-은은한, 강한-약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현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변량의 설명력은 8.2% 였다. 이는 톤 은 톤, 톤 인 톤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를 연

구한 선행연구^{36),37)}의 현시성 요인과 일치하였다.

요인 4는 따뜻한-차가운, 부드러운-딱딱한의 형용사쌍들로 구성되어 온유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6.0%였다.

회귀모형방식에 의해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젊음·활동성 요인에서 경쾌하고, 밝고, 발랄하고, 산뜻한 이미지로, 품위성 요인에서는 우아하고, 조화되고, 품위있어 보이는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강렬하고, 강한 것으로 그리고 온유성 요인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변량에서 도출된 4개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7.1%이며 이중 젊음·활동성 요인과 품위성 요인이 52.9%를 차지하여 이 두 요인은 상·하의가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으로 조합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2. 무채색 치마와 유채색 저고리의 톤 변화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1) 빨강 저고리의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무채색 치마와 빨강 저고리의 톤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4>와 같다. 무채색 치마톤이 흰색(N9)인 경우 빨강저고리 톤간의 이미지 차이를 보면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젊음·활동성차원에서 흰색치마와 비비드 빨강 저고리의 조합은 매우 경쾌하고 발랄하고 어려보이는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저고리의 명도가 낮은 다크나 덜 톤 보다 명도가 높은 라이트 톤 저고리에서 이러한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비비드, 라이트, 다크 톤 저고리와의 조합은 조화되고 품위있는 것으로, 덜 톤 저고리와 조합되면 가장 품위없고 불안정하며 지적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라이트>다크>덜 톤 저고리와 조합

<표4> 무채색 치마톤별 빨강 저고리톤 간의 이미지 차이

치마톤	저고리톤	vivid	light	dull	dark	F
요인						
N9	젊음·활동성	1.41 ^a	.46 ^b	.29 ^b	.07 ^b	5.174 ^{**}
	품위성	.36 ^a	.27 ^a	-.81 ^b	.08 ^a	3.777 [*]
	현시성	.00 ^a	-1.27 ^b	-.46 ^a	-.51 ^{ab}	3.428 [*]
	온유성	.54	.87	-.06	.39	2.047
N7	젊음·활동성	-.24 ^a	-.49 ^a	-1.17 ^b	-.95 ^b	8.338 ^{**}
	품위성	.18	.47	-.50	.29	1.885
	현시성	.21	-.45	.19	-.01	1.625
	온유성	.61	.30	.15	.25	.406
N4	젊음·활동성	.15 ^a	-.59 ^b	-.75 ^b	-1.09 ^b	5.364 ^{**}
	품위성	.34	.39	.24	-.03	.425
	현시성	1.04 ^a	.26 ^b	.63 ^{ab}	-.10 ^c	4.251 ^{**}
	온유성	.96 ^a	.30 ^{ab}	-.18 ^b	-.11 ^b	3.473 [*]
N2	젊음·활동성	.24 ^a	-.70 ^b	-.93 ^b	-.51 ^b	6.525 ^{**}
	품위성	.38	.20	-.02	.63	1.040
	현시성	.86	.03	.23	-.07	1.796
	온유성	.62	.39	-.40	.10	1.798

* : p < .05 ** : p < .01 a, b, c : Duncan 검정에 의한 집단분류

되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특히 라이트 톤 저고리일 때 가장 은은하고 약한 이미지를 주어 라이트 톤 빨강 저고리가 부정적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마톤이 밝은회색(N7)일 경우 짙음·활동성 차원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저고리톤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다. 특히 덜 톤 저고리와 조합될 때 가장 중후하고 어둡고 나이들어보이고 비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마톤이 어두운회색(N4)일 경우 빨강저고리 톤 간의 이미지 차이는 짙음·활동성, 현시성, 온유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순색인 비비드 빨강저고리와 조합될 경우는 경쾌하고 어려보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된 반면에 다크, 덜, 라이트 톤 순의 빨강 저고리와 어두운 회색 치마와 조합될 경우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중후하고 어둡고 나이들어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현시성 차원에서는 비비드, 덜, 라이트 저고리와의 조합은 긍정적으로, 다크 저

고리와의 조합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비비드 저고리와의 배색은 매우 강렬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비비드 톤 빨강저고리의 색채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비비드, 라이트 저고리와의 조합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덜, 다크 톤 조합은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조합되는 저고리톤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치마톤이 검정(N2)일 경우는 짙음·활동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치마톤이 어두운 회색인 경우와 같이 비비드 빨강 저고리와 조합되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경쾌하고 밝고 어려보이며 활동적인 이미지로, 덜, 라이트, 다크 톤과 조합되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2) 노랑 저고리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무채색 치마와 노랑 저고리의 톤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와 같다. 무

<표5> 무채색 치마톤별 노랑 저고리톤 간의 이미지 차이

치마톤	저고리톤 요인	vivid	light	dull	dark	F
N9	짙음·활동성	1.35 ^a	1.44 ^a	1.40 ^a	.55 ^b	3.950*
	품위성	-.53	-.38	-.86	-.73	.690
	현시성	-.53	-.76	-.75	-.42	.437
	온유성	.59	.34	-.21	-.24	2.713
N7	짙음·활동성	.70 ^a	.99 ^a	.60 ^a	-.51 ^b	10.875**
	품위성	-.12	-.59	-.43	.12	1.111
	현시성	.17	.35	.06	-.07	.371
	온유성	.69 ^a	.12 ^{ab}	.61 ^a	-.37 ^b	.4946**
N4	짙음·활동성	.58 ^a	.28 ^a	.35 ^a	-.78 ^b	6.751**
	품위성	-.31	.52	.17	.02	1.484
	현시성	.47	.21	.17	.32	.320
	온유성	.00	.13	-.12	-.45	.685
N2	짙음·활동성	.70 ^a	.59 ^{ab}	.01 ^{bc}	-.43 ^c	4.674**
	품위성	-.15	-.27	-.19	.61	1.602
	현시성	.32	.68	.46	.11	.865
	온유성	.00	.08	-.10	.38	.572

* : p < .05 ** : p < .01 a, b, c : Duncan 검정에 의한 집단분류

체색의 치마톤이 흰색(N9)인 경우 짧음·활동성 차원에서 노랑 저고리 톤 간의 이미지 차이를 보면 톤 변화에 관계없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다크 톤보다 비비드, 라이트, 덜 톤 노랑 저고리일 경우 매우 경쾌하고 밝고 어려보이며 활동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이는 치마톤이 밝은회색, 어두운회색, 검정인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비비드, 라이트, 덜 톤 노랑저고리와 조합되면 긍정적인 평가를, 다크 톤 노랑저고리와 조합되면 어둡고 나이들어 보이며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랑저고리의 톤 변화에 따라 짧음·활동성 이미지는 차이를 보여 치마톤보다 노랑저고리의 톤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마톤이 밝은회색(N7)인 경우는 온유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비비드, 덜, 라이트 톤 순의 노랑저고리와 조합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다크 톤 저고리와 조합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어둡고 탁한 다크 톤 저고리는 밝은회색 치마에 비해 작은 면적이지만 온유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초록 저고리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무채색 치마와 초록 저고리의 톤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6>와 같다. 무채색 치마톤이 흰색(N9)인 경우 초록저고리 톤 간의 이미지 차이를 보면 짧음·활동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짧음·활동성 차원에서는 초록 저고리의 톤변화에 관계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비비드 톤 초록저고리와 조합될 경우 가장 짧음·활동성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치마톤이 밝은회색(N7)인 경우 초록 저고리 톤 간의 이미지 차이를 보면 품위성, 현시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저고리 톤이 밝고 치

<표6> 무채색 치마톤별 초록 저고리톤 간의 이미지 차이

치마톤	저고리톤 요인	vivid	light	dull	dark	F
N9	짧음·활동성	1.17 ^a	.54 ^{ab}	.60 ^{ab}	.10 ^a	3.087*
	품위성	.00	-.86	-.80	-.78	1.589
	현시성	-.73	-.93	-1.24	-.42	1.229
	온유성	-.62	-.16	-.90	-.91	2.117
N7	짧음·활동성	-.33	-.10	-.63	-.70	1.501
	품위성	-.44 ^b	.77 ^a	-.06 ^b	.18 ^{ab}	3.565*
	현시성	.26 ^a	-.63 ^b	.43 ^a	.06 ^{ab}	3.351*
	온유성	-.02	-.14	-.67	-.22	.817
N4	짧음·활동성	-.55 ^a	-.23 ^a	-.64 ^{ab}	-.116 ^b	4.699**
	품위성	.40	.31	.72	.10	1.096
	현시성	-.26	.27	-.06	-.36	.837
	온유성	-.08	-.15	-.56	-.76	1.710
N2	짧음·활동성	-.46	-.64	-.64	-.41	.382
	품위성	.24	.28	.57	.42	.374
	현시성	.01	.77	.35	.82	2.123
	온유성	-.65	.01	-.04	-.69	1.337

* : p < .05 ** : p < .01 a, b, c : Duncan 검정에 의한 집단분류

마색이 유사한 명도인 라이트 톤 저고리와 조합되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가장 조화되고 품위 있는 것으로, 비비드 초록저고리와 조합되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가장 품위없고 지적이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반면에 현시성 차원에서는 라이트 톤 초록저고리와 조합되면 부정적으로, 덜과 비비드 초록저고리와 조합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치마톤이 어두운회색(N4)인 경우 짙음·활동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흰색치마와 초록저고리의 톤 조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저고리톤 변화에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중 다크 톤 초록저고리와 조합될 때 가장 중후하고 어둡고 나아들어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즉, 동일한 톤의 저고리라도 치마톤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어 조합되는 단서의 영향이 전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마톤이 검정색(N2)인 경우 초록 저고리 간의 이미지 차이를 보면 4가지 차원 모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저고리 톤 변화에 관계없이 짙음·활동성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품위성과 현시적인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치마가 검정색일 경우는 저고리 톤보다 검정 치마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채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톤 변화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1) 빨강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빨강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톤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7>과 같다.

비비드 톤 저고리의 경우 치마톤 간의 이미지 차이를 보면 짙음·활동성과 현시성 차원에서

<표7> 빨강 저고리톤별 치마톤 간의 이미지 차이

		치마톤	N9	N7	N4	N2	F
저고리톤	유인						
vivid	짙음·활동성	1.41 ^a	-.24 ^b	.15 ^b	.24 ^b	8.587 ^{**}	
	품위성	.36	.18	.34	.38	.129	
	현시성	.00 ^c	.21 ^{bc}	1.04 ^a	.86 ^{ab}	3.374 [*]	
	온유성	.54	.61	.96	.62	.760	
light	짙음·활동성	.46 ^a	-.49 ^b	-.59 ^b	-.70 ^b	8.183 ^{**}	
	품위성	.27	.47	.39	.20	.164	
	현시성	-1.27 ^b	-.45 ^a	.26 ^a	.03 ^a	7.616 ^{**}	
	온유성	.87	.30	.30	.39	.744	
dull	짙음·활동성	.29 ^a	-1.17 ^b	-.75 ^b	-.93 ^b	9.874 ^{**}	
	품위성	-.81	-.50	.24	-.02	2.702	
	현시성	-.46 ^b	.19 ^{ab}	.63 ^a	.23 ^a	3.619 [*]	
	온유성	-.06	.15	-.18	-.40	.571	
dark	짙음·활동성	.07 ^a	-.95 ^b	-1.09 ^b	-.51 ^{ab}	5.604 ^{**}	
	품위성	.08	.29	-.03	.63	.870	
	현시성	-.51	-.01	-.10	-.07	.498	
	온유성	.39	.25	-.11	.10	.337	

* : p < .05 ** : p < .01 a, b, c : Duncan 검정에 의한 집단분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비드 톤 빨강저고리와 흰색, 어두운회색, 검정 치마의 조합 특히 흰색 치마와의 배색은 매우 경쾌하고 어려보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밝은회색 치마와의 조합은 가장 품위없고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치마의 톤변화에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어두운 회색 치마와 조합될 때 가장 강렬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라이트 톤 빨강저고리인 경우 치마TON 간의 이미지 차이를 보면 짧음·활동성과 현시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저고리 톤이 비비드인 경우 흰색치마와 조합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경쾌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검정, 어두운회색, 밝은회색과 조합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어둡고 나이들어보이고 비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하여 치마의 톤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현시적인 차원에서는 흰색, 밝은회색 치마와의 조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은은하고 약한 이미지로, 어두운회색과 검정치마와의 조합은 강렬하고 강한 이미지로 지각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하고 밝은 톤인 라이트 톤 저고리도 고명도의 치마와 조합되면 은은하고 약한 이미지로, 저명도의 치마와 조합되면 강렬한 이미지로 평가되어 동일한 라이트 톤 저고리라도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치마의 톤 즉, 조합되는 치마의 명도변화가 현시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덜 톤 빨강저고리인 경우 치마TON 간의 이미지 차이를 보면 짧음·활동성과 현시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짧음·활동성 차원에서 치마가 흰색일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밝은회색>검정>어두운회색 치마와의 조합 순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어둡고 나이들어 보이며 비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짧음·활동성 차원에서와는 상반된 평가를 하여 어두운회색, 검정, 밝은회색 치마와 조합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강렬하고 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흰색치마와 조합될 경우 은은하고 약한 이미지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다크 톤 빨강저고리인 경우 짧음·활동성 차원에서만 치마TON 간의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두운회색치마 > 밝은회색 > 검정치마

와의 조합 순으로 어둡고 칙칙하며 나이들어 보이고 비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고 흰색치마와의 조합은 밝고 발랄하고 산뜻하고 귀엽고 화려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2) 노랑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노랑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톤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8>과 같다. 노랑저고리 톤이 비비드톤일 경우 치마TON 간의 이미지 차이를 보면 짧음·활동성과 온유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비드 노랑저고리와 4가지 치마TON 조합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흰색치마와 조합될 때 가장 짧음·활동성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온유성 이미지에서는 어두운회색이나 검정치마보다 밝은회색이나 흰색치마와 조합될 때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노랑저고리 톤이 라이트 톤일 경우 치마TON 간의 이미지 차이를 보면 짧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차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짧음·활동성 차원에서는 치마TON의 변화에 상관없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중 흰색치마와의 조합이 가장 경쾌하고 어려보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어두운회색 치마와의 조합을 가장 품위있고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흰색, 밝은회색, 검정 치마와 조합되면 조화되지 않고 품위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흰색을 제외한 검정, 밝은회색, 어두운회색의 순으로 라이트 노랑저고리와 조합하면 강렬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노랑저고리 톤이 덜 톤일 경우 치마TON 간의 이미지 차이를 보면 짧음·활동성, 현시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비드, 라이트 톤 저고리에서와 마찬가지로 4가지 톤의 치마와 조합될 때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흰색 치마와 조합된 경우 가장 경쾌하고 밝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흰색치마와의 조합을 가장 은은하고 약해보이는 것으로, 검정치마와의 조합은 가장 강렬한 이미

<표8> 노랑 저고리톤별 치마톤 간의 이미지 차이

		치마톤	N9	N7	N4	N2	F
		저고리톤 오인					
vivid	젊음·활동성	1.35 ^a	.70 ^b	.58 ^b	.70 ^b	2.945*	
	품위성	-.53	-.12	-.31	-.15	.332	
	현시성	-.53	.17	.47	.32	2.191	
	온유성	.59 ^{ab}	.69 ^a	.00 ^b	.00 ^b	3.077*	
light	젊음·활동성	1.44 ^a	.99 ^{ab}	.28 ^c	.59 ^{bc}	7.287**	
	품위성	-.38 ^b	-.59 ^b	.52 ^a	-.27 ^{ab}	3.014*	
	현시성	-.76 ^b	.35 ^a	.21 ^a	.68 ^a	5.679**	
	온유성	.34	.12	.13	.08	.162	
dull	젊음·활동성	1.40 ^a	.60 ^b	.35 ^b	.01 ^b	5.021**	
	품위성	-.86	-.43	.17	-.19	2.153	
	현시성	-.75 ^b	.06 ^a	.17 ^a	.46 ^a	4.997**	
	온유성	-.21	.61	-.12	-.10	1.935	
dark	젊음·활동성	.55 ^a	-.51 ^b	-.78 ^b	-.43 ^b	7.994**	
	품위성	-.73 ^b	.12 ^a	.02 ^{ab}	.61 ^a	4.750**	
	현시성	-.42	-.07	.32	.11	1.683	
	온유성	-.24	-.37	-.45	.38	2.137	

* : $p < .05$ ** : $p < .01$ a, b, c : Duncan 검정에 의한 집단분류

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어 치마색의 명도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노랑저고리 톤이 다크톤일 경우 젊음·활동성 차원에서는 흰색치마와의 조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검정, 어두운회색, 밝은회색 치마와의 조합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어둡고 나이 들어보이고 비활동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품위성차원에서는 흰색치마와 조합되면 품위없는 것으로 검정, 밝은회색 치마와 조합되면 품위있고 안정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초록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초록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톤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9>과 같다. 초록 저고리의 경우 치마톤 간의 차이를 보면 4가지 톤의 저고리 모두 젊음·활동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흰색치마와 조합될 경우 가장

경쾌하고 밝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밝은회색, 어두운회색, 검정 치마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저고리톤 보다 치마톤이 젊음·활동성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록저고리 톤이 라이트일 경우 치마톤 간의 차이를 보면 품위성 차원에서 흰색치마와 조합되면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한 반면에 밝은회색, 어두운회색, 검정 치마 순으로 조화되고 품위있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검정, 어두운회색 치마와의 조합은 강렬하고 강한 이미지를 주는것으로, 흰색, 밝은회색 치마와의 조합은 은은하고 약해보이는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초록 저고리톤이 딜 톤일 경우 치마톤 간의 차이를 보면 품위성 차원에서는 어두운회색과 검정치마와 조합될 때 조화되고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흰색치마, 밝은회색 치마와의 조합은 가장 조화되지 않고 품위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흰색치마와 조합되면 매우 은은하고 약해보이지만 밝은회색이나

<표9> 초록 저고리톤별 치마톤 간의 이미지 차이

		치마톤	N9	N7	N4	N2	F
저고리톤	요인						
vivid	젊음·활동성	1.17 ^a	-.33 ^b	-.55 ^b	-.46 ^b	20.242 ^{**}	
	품위성	.00	-.44	.40	.24	2.720	
	현시성	-.73	.26	-.26	.01	2.037	
	온유성	-.62	-.02	-.08	-.65	1.225	
light	젊음·활동성	.54 ^a	-.10 ^b	-.23 ^b	-.64 ^b	4.811 ^{**}	
	품위성	-.86 ^b	.77 ^a	.31 ^a	.28 ^a	5.836 ^{**}	
	현시성	-.93 ^b	-.63 ^b	.27 ^a	.77 ^a	6.766 ^{**}	
	온유성	-.16	-.14	-.15	.01	.115	
dull	젊음·활동성	.60 ^a	-.63 ^b	-.64 ^b	-.64 ^b	7.181 ^{**}	
	품위성	-.80 ^b	-.06 ^{ab}	.72 ^a	.57 ^a	5.679 ^{**}	
	현시성	-1.24 ^b	.43 ^a	-.06 ^a	.35 ^a	9.054 ^{**}	
	온유성	-.90	-.67	-.56	-.04	1.413	
dark	젊음·활동성	.10 ^a	-.70 ^{bc}	-1.16 ^c	-.41 ^{ab}	5.652 ^{**}	
	품위성	-.78 ^b	.18 ^a	.10 ^a	.42 ^a	3.056 [*]	
	현시성	-.42 ^b	.06 ^b	-.36 ^b	.82 ^a	5.207 ^{**}	
	온유성	-.91	-.22	-.76	-.69	.917	

* : $p < .05$ ** : $p < .01$ a, b, c : Duncan 검정에 의한 집단분류

검정 치마와 조합될 경우는 강렬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같은 저고리 톤이라도 치마톤에 따라 이미지 차이를 보였다.

초록 저고리톤이 다크 톤일 경우 치마톤 간의 차이를 보면 품위성 차원에서 흰색치마와 조합되면 가장 품위없고 단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검정, 밝은회색, 어두운회색의 순으로 조합되면 품위있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검정치마와 다크 톤 초록저고리의 조합을 가장 강렬하고 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흰색과 어두운회색 치마와 조합되면 약하고 은은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톤 변화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이를 규명하고자 25개의 형용사상을 요인 분석하여 이미지 차원을 밝히고, 사용된 단서들의 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무채색 치마와 유채색 저고리의 톤 조합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요인 분석한 결과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차원의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요인 중 젊음·활동성 요인과 품위성 요인이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채색 치마와 유채색 저고리의 톤 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이미지 차원별로 살펴본 결과 젊음·활동성 차원에서 치마가 밝은회색, 어두운회색, 검정일 경우는 저고리의 색과 톤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흰색일 경우는 저고리의 색상과 톤에 관계없이 모두 밝고 발랄하며 어려보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어 흰색 치마는 젊음·활동성 이미지에 매우 긍정적인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무채색 치마와 유채색 저고리를 중심으로 저고리의 색상과 치마, 저고리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리의 경우 노랑저고리는 톤이 비비드, 라이트, 딜 톤이면 무채색 치마의 톤 변화에 관계없이 모두 경쾌하고 어려보이며 활동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무채색 치마의 명도변화에 의한 이미지 차이보다 노랑저고리의 색채이미지가 짚음·활동성 이미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 초록 저고리일 경우는 저고리 톤에 상관 없이 흰색치마와 조합된 경우는 긍정적으로 지각되고 밝은회색, 어두운회색, 검정 치마와 조합된 경우는 치마톤에 따라 짚음·활동성 이미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품위성 차원에서는 치마톤 변화에 관계없이 비비드, 라이트 빨강저고리는 조화되고 품위있는 것으로 비비드 노랑저고리는 조화되지 않고 품위없는 것으로 나타나 저고리 색상에 따라 차이를 보여 같은 치마톤도 저고리의 색상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저고리는 저고리의 톤 변화에 관계없이 치마톤이 어두운 회색이거나 검정일 경우는 조화되고 안정적이고 품위있는 것으로 나타나 명도가 낮은 톤의 치마와 조합될 때 조화되고 품위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빨강 비비드 톤 저고리는 치마톤에 관계없이 강렬하고 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어 비비드 빨강저고리의 강렬한 색채이미지가 치마톤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랑과 초록저고리는 톤 변화에 상관없이 고명도인 흰색치마와 조합될 때 은은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고명도의 흰색 치마가 현시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검정치마는 빨강 다크 톤 저고리를 제외한 빨강, 노랑, 초록 저고리와 조합할 때 어두운 회색 치마는 빨강 다크 톤 저고리를 제외한 빨강, 노랑 저고리와 조합할 때 강렬하고 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현시적인 이미지 연출에는 치마의 톤을 저명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비비드, 라이트 톤 빨강과 노랑 저고리는 무채색 치마의 톤 변화에 관계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록저고리의 경우는 라이트 톤 저고

리와 검정 치마의 조합을 제외한 모든 조합에서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치마톤에 의한 영향보다 초록 저고리가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온유성 이미지는 저고리 색에 따라 그 차이가 두드러져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연출에는 난색계열인 빨강과 노랑 저고리에 비비드와 라이트 톤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치마와 저고리의 배색을 무채/유채 배색으로 구성하여 톤에 변화를 준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이미지 차원별 차이를 보여 치마, 저고리의 조합되는 색상과 톤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연출될 수 있음이 규명되었다. 특히 선행연구³⁸⁾³⁹⁾의 톤 온 톤 배색과 톤 인 톤 배색에 의한 이미지와 비교할 때 한복의 저고리 색상이 빨강, 노랑, 초록으로 동일하더라도 저고리 색상에 조합되는 치마의 배색방법에 따라 한복착용자의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되어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저고리와 치마의 색상 각각에 대한 지각자의 이미지는 치마·저고리의 배색방법에 따른 이미지와는 차이를 보임으로서 Gibbins & Schneider⁴⁰⁾의 견해를 지지해주고 또한 색의 명도, 채도 색상의 3가지 차원이 의복착용자의 표면효과로 작용한다고 본 Delong⁴¹⁾의 견해가 입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의 다양한 배색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저고리 색상을 빨강, 노랑, 초록의 유채색으로, 치마색을 무채색으로 하여 톤을 다르게 조합한 유채/무채 배색을 통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는 색상과 톤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상·하의 2색 배색을 중심으로 이미지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3색 배색, 재질, 무늬 등의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조사대생자가 여대생으로 한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극물을 컬러 출력물을 사용하여 실제 원단에서 지각되는 색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복에 대

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분석한 자료는 다양한 이미지 변화를 요구하는 소비자와 의류업체의 색채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3).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pp.80-81.
- 2) 강경자, 임지영 (2005). 톤 온 톤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3(5), pp.804-818.
- 3) 강경자, 최수경 (2005). 배색방법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톤 인 톤 배색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3(6), pp.977-989.
- 4) 박은주 (1999).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pp.278-279.
- 5) Debrey, R (1994). *이미지의 삶과 죽음*. 정진국 역. 서울: 도서출판 시각과 언어. p.137.
- 6) 정은주 (2003). *색채학*.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pp.104-105.
- 7) Hollander, Anne (1993). *Seeing Through Clothes*. L.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365.
- 8) Francis, S. M., & Evans, P. K (1987).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Perception Motor Skills* 64(2), pp.383-390.
- 9) 이윤주 (1992). 복식에 있어서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아르데코 시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 (2000). 한국 성인 남녀의 의복 선호색. *한국의류학회지* 24(7), pp.964-975.
- 11) 김미영 (2002). 일반색·의복색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특성 및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4(7), pp.964-975.
- 12)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 (2002).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5), pp.715-726.
- 13) Ikeda Hiroko & Konoe Gentarow (1999). The Effects of Color of Clothes on Interpersonal Perception. *Journal of Color Science Association of Japan*, p.23.
- 14)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40.
- 15) 박종희, 최재란, 류숙희 (2000) 4가지 무채색의복의 형태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4(8), pp.1177-1186.
- 16)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 색, 톤 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 pp.395-406.
- 17) 문주영, 강경자(2003).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1), pp.311-326.
- 18) 이미정, 김준범, 이인자 (1997). 의복디자인 요소 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pp.1287-1296.
- 19) 강혜원, 고애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pp.211-227.
- 20) 이해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지각(제1보) -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pp.597-606.
- 21) 금기숙 (1990). 조선 복식미의 탐구. *복식* 14, pp.167-183.
- 22) 이현화, 박찬부 (1997).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 -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 pp.313-336.
- 23) 강경자, 임지영 (2005). Op. cit., pp.804-818.
- 24) 강경자, 최수경 (2005). Op. cit., pp.977-989.
- 25) Gibbins, K., & Schneider, A (1980). Meaning of garments: Relation between impression of an outfit and the message carried by its component garm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51*. pp.287-291.
- 26) 강경자, 문주영 (2004).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3보)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

- 의류학회지 28(7), pp.962-973.
- 27) 강경자, 임지영 (2005). Op. cit., pp.804-818.
- 28) 강경자, 최수경 (2005). Op. cit., pp.977-989.
- 29) KBS 한국색채연구소 (1991). *한국표준색표*집, KBS문화사업단.
- 30) 강혜원, 고애란 (1991). Op. cit., pp.211-227.
- 31) 이현화, 박찬부 (1997). Op. cit., pp.313-336.
- 32) 이혜숙, 김재숙 (1998). Op. cit., pp.597-606.
- 33) 강경자, 문주영 (2004). Op. cit., pp.962-973.
- 34) 이현화, 박찬부 (1997). Op. cit., pp.313-336.
- 35) 이명희 (1999). 노년여성의 한복 및 양장 착용과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 43, pp.187-202.
- 36) 강경자, 임지영 (2005). Op. cit., pp.804-818.
- 37) 강경자, 최수경 (2005). Op. cit., pp.977-989.
- 38) 강경자, 임지영 (2005). Op. cit., pp.804-818.
- 39) 강경자, 최수경 (2005). Op. cit., pp.977-989.
- 40) Gibbins, K., & Schneider, A (1980). Op. cit., pp.287-291.
- 41) Delong M. R (1968).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6.* pp.93-106.